“화두 참구로 본래 마음자리 찾아야”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
진제 법원 대선사
불광출판사
2만3000원

조계종 13·14대 종정 역임
진제 법원 대종사의 법어집
참나 밝히는 지혜의 길 안내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중생들은 숙세의 업식이 태산과 같아 한시도 번뇌와 망상에서 쉬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 참선을 하면 번뇌 망상이 쉬어지고, 화두 한 생각이 또렷하게 이어지면 불안, 초조, 갈등, 욕심이 잠잠해지게 되니, 사업하는 사람은 올바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은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여 공부하게 되고 근심, 걱정,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조계종 제13·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眞際法遠) 대종사의 법어집 〈진제 대선사의 깨달음의 세계〉가 나왔다. 진제 스님은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로 이어진 한국 선불교의 정통 법맥을 계승한 대표적 선지식이다. 선학원 이사장, 조계종 종정 등을 역임했으며, 국내외에서 수차례 무차선법회와 간화선 대법회의 법주를 맡아 한국 간화선의 정신을 널리 펼쳐왔다.

스님은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대자유인이 되는 지혜의 길로 안내한다. ‘무엇이 삶을 빈한(貧寒)하게 하는가’란 제하의 서문 법어를 시작으로, ‘부처님과 선사들의 바른 법의 눈’, ‘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선 수행’, ‘말 밖에 전해진 한마디’ 등 18개의 법어가 펼쳐진다. 각 법어는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선문답, 스님의 실제 참구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선불교의 정신과 법맥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님은 눈 밝은 선지식에게 바른 법을 배워, 생활 속에서 ‘참나’를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당부한다. 특히 스님의 법문 곳곳에는 분별심을 단박에 끊고 본래의 자리를 돌이켜 보게 하는 선종 특유의 단호함이 배어 있다. 진제 스님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父母未生前 本來面目]”라는 화두를 반복해 제시하며 본래 자기 마음자리를 찾을 것을 역설한다.

나아가 “사람들이 빈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며 ‘지혜가 만복의 근본’임을 일깨운다. 스님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미 내면에 팔만사천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진제 법원 대종사. 현대불교신문 자료 사진

알지 못해 번뇌와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 참선 수행은 ‘인간 삶의 근본’인 지혜의 눈을 밝히는 길이다. 진제 스님은 “다 갖추어져 있건마는 알지 못해 쓰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며,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마음자리로 되돌려 일상 속에서 꾸준히 참선할 것을 당부한다.

수행법에 대한 가르침은 매섭고 철저하다. “화두가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써 화두를 챙기라”는 당부와 함께 “다시금 마음을 담금질하여 대오견성(大悟見性)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 “일체 처 일체 시에 오매불망 간절히, 뼛골에 사무치는 화두의 심을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밀고 또 밀 것” 등 철저한 용맹정진을 주문한다.

이처럼 흐르는 물처럼 끊어짐 없이 일념으로 정진하면, 문득 참의심이 돈발(頓發)해 시간이 흐르다가 홀연히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는 찰나, 화두가 타파되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지 현실을 떠난 출세간적인 이상향이 아니다. 어리석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자, 자유로운 삶을 향한 가능성이다. 즉, 개개인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삶의 어떤 국면이든 온전히 수용하고,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주체적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또한 온 천하가 한 집이 되고 우주 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되어 대자대비심이 솟아나 마침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수행과 운력, 학술대회, 법회 등 스님의 다양한 활동을 담은 사진도 함께 수록돼 현장감을 더한다. 책 뒷부분에는 한국 현대 고승 디지털 법어집 인터뷰 내용이 수록돼 독자들이 스님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다 자칫 중심을 잃기 쉬운 시대,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를 향한 참구는 우리를 불안과 갈등을 여읜 본래의 마음자리로 다시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말로 읽으며 깨닫는 금강경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한글 나란히 읽기

혜조 스님 역주
운주사
8000원 / 1만원

혜조 스님, 5년 연구 결실
한글·한문 맞춤형 독송본

〈금강경〉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대표 불교 경전이자,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다. 대승불교와 선불교 중심인 한국불교에서 그 위상은 각별하다. 무아, 공, 보리행 등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어 깊은 철학적 사유와 세속의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이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을 지낸 혜조 스님은 최근 5년여의 연구 끝에 완성한 번역서를 바탕으로, 독송의 편의성을 높인 큰 활자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펴냈다. 이번 신간은 독자들이 독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과 글자 크기를 키우고 여백을 넉넉하게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독자가 ‘한글’과 ‘한문’ 독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판본으로 기획됐다.

초록색 표지 판본은 자연스러운 우리말 독송을 위해 한글 금강경을 앞부분에, 한문 금강경은 뒷부분에 실었다. 노란색 표지 판본은 왼쪽 면에 한문 원문을, 오른쪽 면에 우리말 번역을 나란히 배치해 원문과 뜻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책 모두 큰 활자를 여백 있게 배치했으며, 난해한 용어는 미주를 달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아울러 책 뒷부분에는 3000 독송 서원을 세운 불자들을 위한 횟수 점검표 기도 일지도 함께 수록했다.

혜조 스님은 “강원에서 한문 경전을 공부할 때, 뜻을 배우게 되니 오히려 모른 채 읽던 시절보다 마음이 답답했다”며 “언젠가 알기 쉽게 번역하겠다고 다짐하며 3000독 이상을 했고, 어느덧 출가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한글 번역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설정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추천사에서 “경전의 사구게(四句偈) 하나만 타인에게 일러주어도 무량한 복덕을 얻는다”며 “이 경전이 널리 퍼져, 모든 생명이 궁극의 안정을 얻고 자유로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희정 기자

‘수좌들의 사표’ 보문 스님 발자취 조명



선사 보문
이강옥 지음
사유수
1만8000원

철저한 하심과 개혁 의지
삶과 가르침 담은 평전

근대 ‘수좌들의 사표(師表)’로 불린 보문 스님(1906~1956)의 삶과 가르침을 다룬 평전이 나왔다. 이강옥 영남대 명예교수의 〈선사 보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치열하게 살아낸 보문 스님의 발자취를 완성도 높게 복원해 낸 일대기다.

저자는 증언집 〈보문 선사〉(2012, 김광식)의 생존 증언자들을 찾아 기억을 채록하고, 새로운 제보와 스님이 생전 읽었던 경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스님의 삶의 궤적을 좇았다.

책은 ‘세상 속으로’, ‘출가’, ‘오대산 입산’ 등 총 9장에 걸쳐 스님의 행적을 살핀다. 각 장 첫머리에는 핵심 발문을 배치하고, 당대 사진과 유명 화가의 구도화 9점을 수록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경봉 스님과 나눈 서신, 오도송, 한암 스님의 인가 게송 등을 수록해 깊이를 더했다.

이 책에 따르면, 보문 스님은 불교적 신념과 삶이 일치했던 ‘지사형 선승’이었다. 대구사범학교 시절 항일 학생운동에 가담했다가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출가의 길을 택했다. 이후 상원사에서 대중 논의를 통해 ‘원융 살림’과 ‘선방 24시간 개방’ 등 승가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보문 스님은 오대산 한암 스님(1876~1951)의 전통 법맥을 이은 상좌이기도 했다. 한암 스님은 보문 스님에게 현로(玄路)라는 법명을 내리고 “내 상좌 중 선에 대한 지견이 투철한 사람은 보문뿐”이라고 칭했다. 훗날 탄허 스님(1913~1983) 역시 한암 스님 비문에 “스님의 법을 얻은 제자 중 오직 보문과 난암만이 지행(志行)이 초절(超絶)하여 자못 종풍을 떨쳤다”고 명시하며 이를 인정했다.

수행자로서 보문 스님의 일화는 선방의 전설로 회자됐다. 화두삼매에 빠졌을 때는 신도가 지나가거나 아궁이에 부지깽이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를 만큼 치열하게 정진했다. 상원사에서 용맹정진 끝에 오도송을 읊자, 한암 스님은 깨달음을 인가하며 자운(慈雲)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1892~1982)과는 두 번의 법거량 후 서신 교환이 수십 년간 계속되기도 했다.

보문 스님은 철저히 계율을 준수하고,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을 실천했다. 늘 삿갓에 주장자를 짚고 다녔으며, 어느 선방에서든 궂은일인 공양주를 도맡았다. 먹을 양을 정확히 맞춰 찬반을 남기지 않으니 쥐와 파리가 사라졌고, 자투리 시간엔 땔감을 구하고 마당을 쓸었다. 울력 때면 가장 먼저 똥지게를 졌는데, 도리사에서 똥장군을 지고 가는 그를 알아본 서암 스님이 길에서 큰절을 올렸을 정도였다.

보문 스님은 의지가 굳고 타협이 없었다. 성철 스님 등과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으나, 함께 큰뜻을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변명이나 다툼 없이 조용히 떠나는 ‘여임’의 방식을 택했다.

스님은 상원사에서 정진할 때 다친 후 마취 없이 치른 늑골 수술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1953년 팔공산 삼성암에 토굴을 마련해 아픈 중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1955년 대구 보현사 주지 부임 후에는 평신도 중심의 운영 혁신과 선방 건립을 이끌었다. 1956년 입적한 보문 스님에 대해 희섭 스님은 “50년 중노릇하며 그렇게 여법하게 사시는 분을 못 봤다”고 회고했고, 초우 스님은 대구 보문사를 통해 보문 스님을 기렸다.

이강옥 교수는 〈선사 보문〉에 대해 “보문 스님의 진실된 모습을 기록하고자 했다”면서 “이 책은 격동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간 한 인간의 기록이며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자 했던 진실한 수행자의 행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배희정 기자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288쪽 | 19,000원

★☆★ 2025 교보문고 하반기 가장 주목받는 신간

★☆★ 2026 교보문고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20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독자들이 선택한 마음 공부 안내서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서 이제는 스테디셀러로 거듭난 화제의 도서!
★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보만 스님 불교심리학 400만 조회, 6천여 댓글

“종교 서적인 줄 알았는데,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끊이지 않는 찬사! ★
• 카톨릭 신자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스님 말씀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 내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책, 너무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 저만 읽기에는 아까운 책이에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 이 책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아내고 싶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 평소 알고 있던 종교 서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